

헤이세이신잔의 성립

이곳은 니타토게 제2전망소입니다. 맑은 날에는 멀리 헤이세이신잔(1,483m) 정상 보이고, 시마바라 시가지에서 동쪽 아리아케카이까지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1990년 가을 이전에는 헤이세이신잔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망 좋은 이곳에서는 당시 시마바라반도에서 가장 높은 후젠다케(1,359m)와 시마바라 마을 동쪽의 낮은 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90년 말 시작된 화산 활동은 그 후 5년 동안 종상화산의 형성과 붕괴를 반복하면서 고온 가스, 재, 진흙 등에 의한 파괴적인 사태를 일으키며 산허리를 내려갔습니다.

1991년 6월 3일에 일어난 화쇄류로 43명이 사망했고 2,000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되었습니다. 분화로 인한 잔해는 아리아케카이까지 달했습니다. 직후 촬영된 사진은 그칠 줄 모르는 분화로 파괴된 풍경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연에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비슷한 분화가 있었고, 운젠 화산이 산기슭 마을을 덮친 것은 이 분화가 처음이 아닙니다. 1998년이 되기 전에 헤이세이신잔은 완전히 안정되었고, 그 후 수십 년간 산의 생태계는 급속히 회복되었습니다. 운젠의 식물은 화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초목이 가장 먼저 산허리 부근으로 돌아왔습니다. 분화 후 10년 안으로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마바라시는 최초의 종상화산이 출현한 지 5년째를 맞은 1996년 5월 20일에 이 종상화산 부분을 헤이세이신잔이라고 명명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재해와 새로운 부흥의 기념으로 삼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헤이세이의 분화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으며, 지형이 평평해지고 많은 식물상이 재생된 지금 황폐했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